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韓

한국어 읽기

韩国语阅读教程

总主编 李光在
主编 李光在 毕信燕
副主编 罗洪玲 朴贤子

三



高等教育出版社
HIGHER EDUCATION PRESS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韓

한국어 읽기

Hanguo Yu Yuedu Jiaocheng

韩国语阅读教程

总主编 李光在
主编 李光在
副主编 罗洪玲 毕信燕 朴贤子

编者

金银花
丁斓
尹春花

三



高等教育出版社·北京
HIGHER EDUCATION PRESS BEIJING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语阅读教程.3/ 李光在主编; 李光在, 毕信燕分册主编.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6

ISBN 978-7-04-031480-9

I. ①韩… II. ①李… ②毕… III. ①朝鲜语—阅读教学—
教材 IV. ①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1) 第 102759 号

策划编辑 闵 阅
版式设计 刘 艳

责任编辑 康冬婷
责任校对 康冬婷

特约编辑 金春英
责任印制 张福涛

封面设计 赵 阳

出版发行 高等教育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城区德外大街4号
邮政编码 100120
印 刷 北京天来印务有限公司
开 本 787×1092 1/16
印 张 13.25
字 数 298 000
购书热线 010-58581118

咨询电话 400-810-0598
网 址 <http://www.hep.edu.cn>
<http://www.hep.com.cn>
网上订购 <http://www.landaco.com>
<http://www.landaco.com.cn>
版 次 2011 年 6 月第 1 版
印 次 2011 年 6 月第 1 次印刷
定 价 28.00 元

本书如有缺页、倒页、脱页等质量问题, 请到所购图书销售部门联系调换
版权所有 侵权必究
物 料 号 31480-00

머 리 말

산동과기직업대학 한국어연구소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새로운 교수법을 담고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1년여에 걸쳐 작업하여 이번에 3 권의 읽기교재를 출간하게 하였다.

한류의 영향과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생한 한국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접근을 보다 쉽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언어란 그것이 쓰이는 사회와 사용하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글 읽기는 언어활동의 출발로써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통해 한국인의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본교재가 유용하리라 여긴다.

특히 종합적인 학습유도를 시도했으며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이 교재를 발간하기에 애쓰신 산동과기직업대학 한국어학과 손숙민 주임, 풍정, 장명, 정위, 우충충, 김윤경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2011년 5월

산동과기직업대학 한국어 연구소 심 재 필

前 言

本书是《韩国语阅读教程》系列教材的第三册，是由中级向高级过渡的水平。选取韩国现代社会和文化方面的话题，内容贴近现代韩国生活，生动有趣，希望学习者在学习语言的同时，获得韩国社会和文化方面的信息，激发阅读的兴趣。

本册的课文内容多选编自韩国现代散文、报道、书信等文本，语言地道，利于学生模仿和学习。同时为了提高韩国语学习者的文学修养，在本册中摘录了神话、传说、随笔和诗歌以及韩国文学的代表体裁之一的盘索里。

本册共10课，每课有4到5篇短文，长度适中，每篇短文后配有单词表和思考题，易于教师教学和学生自学；每课最后配有重点单词和表达的练习题，以便学生深化理解和总结。通过本书的学习，学习者能进一步扩大词汇量，加深对韩国语言和文化理解，达到进入高级阶段学习的水平。

《韩国语阅读教程》系列教材由中国海洋大学的李光在教授任总主编。《韩国语阅读教程（三）》的主编是李光在、毕信燕，副主编为罗洪玲、朴贤子（韩），其他编者包括金银花、丁斓斓、尹春花。

本册的编写得到高等教育出版社韩国语编审组的大力帮助指导，编者在此表示深深的感谢。编者在编写此书时尽了最大努力，但疏漏在所难免，望广大读者批评指正，提出宝贵意见。

编 者
2011年5月

차 례

머리말

제1과	한국인의 가정	1
1.	맞벌이는 과연 외벌이보다 더 넉넉할까?	1
2.	딩크족	5
3.	아버지의 권위.....	7
4.	인터뷰—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10
5.	아들 며느리를 분가시킨 어머니의 편지	12
제2과	직장	16
1.	신이 내린 직장	16
2.	** 자동차 면접 후기	19
3.	회식, 스트레스 받는 자리, 푸는 자리?	23
4.	직장내 인간관계	26
5.	삼성pc 사원모집	29
제3과	한국의 대중문화.....	33
1.	한국의 SNS	33
2.	댓글과 한국의 네티즌 문화	35
3.	컴에서 샘과 겼 한 판!.....	37
4.	중국 대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한국 드라마	39
제4과	문학의 세계.....	43
1.	단군신화.....	43
2.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45

3. 판소리 홍보가.....	50
4. 북	58
5. 한국적 유머와 멋	60
제5과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	66
1. 통계로 본 서울의 변화	66
2.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산다는 건... ..	70
3. 한국 대학생의 군입대.....	73
4. 한국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75
5. 한국의 민족대이동	77
제6과 과학의 신비.....	81
1. 꿈의 해석	81
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84
3. 한국의 성형 의학	86
4. 웰빙 식생활	89
제7과 연애와 결혼.....	94
1. 한국 드라마 속의 가족 백태	94
2. 연상녀와 연하남	97
3. 늘어나는 독신 생활.....	99
4. 발렌타인데이	101
제8과 경제 이야기.....	106
1. 지금 한의대에 돌아간다면?.....	106
2. 개인용 문화	109
3. ‘녹색성장 붐’의 진실과 허상	112
4. 한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를 믿을까?	114

제9과	한국인의 정서	119
1.	한국인의 장남 콤플렉스	119
2.	‘한국인의 행복’ 여론 조사	122
3.	시집가는 친구의 딸에게	124
제10과	알파맘 수난기	129
	알파맘 수난기	129
연습문제	해답	139
번역문		149
어휘 색인		189



제 1 과

한국인의 가정

1

맞벌이는 과연 외벌이보다 더 넉넉할까?



한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맞벌이와 외벌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맞벌이는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녀 돈을 버는 것이며 외벌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맞벌이하는 이유가 일이 좋아서라기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 맞벌이를 해서 과감하게 쓰고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 어느 하나도 소홀하고 싶지 않다.

2010년 5월에 발표한 한국 통계청의 <통계

로 본 한국 부부의 자화상>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에 대해 무려 81.5%의 남성이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가정에도 반영되어 맞벌이 가정이 1998 년 26%에서 2009 년에는 무려 48%에 이르렀다. 2 가정 중 1 가정이 맞벌이 가정인 셈이다.

그러면 과연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가정에 경제적인 자유를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맞벌이는 소득이 높다 보니 돈을 쓸 때 절박감이 떨어져 씹씹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 학원을 보내고,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맞벌이를 하다 보면 교통비나 외식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외벌이 가정보다 훨씬 많아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다. 맞벌이와 외벌이의 소득과 지출을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사례1: 둘이 버는데도 늘 빠듯한 맞벌이 가정

결혼 2 년 차 김선탄, 유조애 부부는 1 년 전 출산한 아이가 있다. 맞벌이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부부의 연봉은 합쳐서 6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로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매달 빠듯하고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여느 맞벌이처럼 외식이 잦은 편이다. 아이 양육비도 만만치 않게 나간다.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주말에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또한 1 년에 한 번 정도 외국여행을 한다. 김 씨 부부는 월급을 따로 관리해서 서로의 지출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데 모이지 않는 달이 더 많다.

월평균 소득 400 만 원에서 전세 대출금 130 만원, 개인연금 30 만 원 지출된다. 보험 25 만 원, 자녀 양육비 100 만원, 관리비 및 공과금 20 만원, 휴대폰요금 10 만원, 자동차 유지비 15 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간다. 남은 금액은 부부 용돈과 외식비, 경조사 등 생활비로 대부분 쓴다. 400 만 원 중 저축 금액은 62 만 원이 전부다. 여유자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례2: 빠듯한 월급봉투 아끼고 줄이는 외벌이 가정

결혼 2 년 차 하혜성, 김성은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서 외벌이를 하게 되었다. 외벌이로 돌아선 현재 월평균 소득은 210 만 원. 예상치 못한 외벌이에 부담이 크지만, 부부가 아이 양육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면서 소득에 맞게 저축과 지출을 하고 있다. 아내보다 성격이 꼼꼼한 남편은 외벌이를 하면서 가계부도 꾸준히 쓰고 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올 9 월에 임대아파트로 분가할 계획이다. 월평균 소득 210 만원에서 주택저축에 20 만원, 개인 연금에 20 만원과 주식으로 3만 원이 지출된다. 보험 22만 원, 부모님과 부부 용돈으로 각각 20 만 원 나가고 생활비와 통신비, 기타 잡비로 73 만 원 쓴다. 210 만 원 중 저축 금액은 70 만 원이 조금 넘는다. 저축금액만 보면 오히려 맞벌이 가정 김선한 씨 집보다 더 높은 편이다.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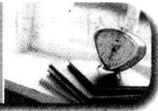
맞벌이	【名】	双职工	출산하다	【动】	生孩子
외벌이	【名】	单职工	좀처럼	【副】	难得
노후준비	【名】	晚年保障	여느	【冠词】	别的
통계청	【名】	统计局	만만치 않다	【形】	不一般
자화상	【名】	自画像	전세 대출금	【名】	房租, 房贷
선호하다	【动】	偏爱	개인연금	【名】	个人年金
반영되다	【动】	反映	공과금	【名】	税金
절박감	【名】	紧迫感	경조사	【名】	红白喜事
쏟아내기	【名】	开销	가계부	【名】	账簿
보육원	【名】	保育院	주식	【名】	股票
부인하다	【动】	否认	잡비	【名】	杂费
빠듯하다	【形】	紧张			

생각해 봅시다

- 1)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2) 나라면 결혼 후에 맞벌이를 할 거예요? 아니면 외벌이를 선택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 3) 중국에서도 과연 외벌이를 하면서 살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요?

2

딩크족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20~30대 젊은 맞벌이 직장인 12 명중 1 명은 딩크족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배우자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자녀 없는 부부를 말한다.

딩크족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는 여건 때문에 미뤘다(45.5%)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42.1%)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조사한 결과 ‘화목한 가정’이라는 응답자가 4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높은 경제력’ 32.6%, ‘가족의 건강’ 11.0% 순으로 높았다.

이런 딩크족이나 싱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기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 가전제품의 미니화이다. 먹거리를 조금씩 나누어 포장하고 가전제품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서울 한 백화점 식당코너에서 용량을 기존의 3 분의 2 로 줄인 미니 메뉴의 매출이 늘고 있다. 서울 롯데백화점 지하 1 층 식당코너. 한 샐러드 전문점에서 만난 회사원 오씨(오주영, 30) 여사는 닭가슴살 샐러드 200g 을 4600 원에 구입했다. 오씨는 “주말 낮에 혼자 음식점에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하나만 배달시키기도 미안해 포장해 가서 먹는 경우가 많다”며 “100g

기준으로 사갈 수 있어 한 번 먹기 딱 좋은 데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좋다”고 말
했다.

가전업체들도 싱글족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우일렉은 최근 7 kg 용량 소형 드
럼세탁기를 출시했다. 크기를 기존 드럼세탁기보
다 최대 60% 줄여 좁은 공간에도 설치하기 쉽다.
삼성전자 ‘아가사랑 삶은 세탁기’는 용량이 3 kg에
불과하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소량 빨래를 자주해
야 한다는 점을 노려 출시했는데 작은 크기 덕분
에 오히려 싱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웅진코웨이
미니 정수기는 기존 제품의 절반 크기로 싱글족의
좁은 부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단 어

딩크	【名】	丁克
일컫다	【动】	叫做
신조어	【名】	新词
화목하다	【形】	和睦
용량	【名】	容量
매출	【名】	销售

가전업체	【名】	家电企业
겨냥하다	【动】	瞄准; 针对
소형드럼세탁기	【名】	小型全自动 洗衣机
출시하다	【动】	上市
정수기	【名】	净水机

생각해 봅시다

- 1) 요즘 한국 사회에서 딩크족과 싱글족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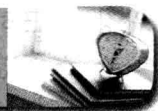
2) 과거의 대가족보다 요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가족 형태가 더 보편화 되는 추세다. 그 가운데 덩크족이나 싱글족 등을 겨냥한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3)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덩크족과 싱글족에 대한 편견과 이상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당신이 덩크족과 싱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드미스, 올드미스(Gold miss 결혼 적령기를 지난 미혼 여성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노처녀라고 한다. 그러나 결혼적령기란 문화나 시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현대의 한국에서는 30세 미만인 경우는 올드미스라 부르지 않는다. 최근에는 남녀평등과 사회진출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30 대의 미혼여성들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새로운 트렌드와 소비를 이끄는 층인 골드미스로 새로 등장하고 있다)

3

아버지의 권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과거와 달리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며칠 전 친구들이 동창회 모임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추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농담을 주고 받은 일이 있었다.

한 친구가 허탈이 웃으며 “요즘 이사철인데 조심들 해,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못 쓰는 고물은 버리고 가니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말고 말이여.”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잇는다. “자동차에 짐을 다 싣기 전에 열린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어, 차에 타고 있는데 설마 버리고 가겠어?” 그러자 또 한 친구가 “그냥 차에 타지 말고 마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안고 타라.”라고 한다. 그러자 묵묵히 말만 듣고 있던 어느 친구가 배시시 웃으며 한 마디 한다. “우리 동네에서 옛그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옆집 이사갈 때 그 집 영감이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아, 글썄 냉장고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간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면서, 우리 집 어디로 이사간 줄 모르느냐 하면서 울먹이며 떠돌아다니더라”라고 한다.

웃지 못할 농담이지만 씩씩히 웃어넘긴다.

일제 시기에 태어나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전쟁을 만나 다리 통통 붓도록 피난 다니고, 4.19, 5.16 혁명 등 전쟁과 정치, 사회, 경제적인 격동기 속에서도 살아왔고, 지난 IMF 때에는 실직하였어도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말도 못하고 거짓으로 위장 출근하여, 막노동판이나 공원 또는 산에 올라가 소주병을 까며 죽고 싶은 마음을 달래던 가장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토록 힘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몸으로 품고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만큼이라도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제 늙어 영감태기가 되어 가장의 권위를 상실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 같은 휴식공간에서 힘 잃은 눈빛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나 경제 얘기를 나누며 소일하는 모습은 어찌나 쓸쓸한지.



권위	【名】	权威	붓다	【动】	肿
추락하다	【动】	下降	피난	【名】	避难
허탈이	【副】	无力地	격동기	【名】	动荡时期
고물	【名】	旧货	위장	【名】	假装
조수석	【名】	副驾驶	막노동	【名】	苦力
마나님	【名】	太太	가장	【名】	家长
애지중지하다	【动】	爱惜	역경	【名】	逆境
영감	【名】	老头	영감태기	【名】	老家伙
울먹이다	【动】	做哭相	상실하다	【动】	丧失
씹씹히	【副】	苦涩地	소일하다	【动】	休闲
일제시기	【名】	日帝强占时期			

생각해 봅시다

- 1) 위의 글은 어떤 아버지가 한국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한탄하며 쓴 것인데 글의 중심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2)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가장 즉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약화되는 현실이다.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